

2026년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hkim@kiep.go.kr, Tel: 044-414-1166)

이형근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hkleee@kiep.go.kr, Tel: 044-414-1069)

이보람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Tel: 044-414-1045)

권혁주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차 례

1. 배경
2. 미-일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
3. 미-일 협력 방향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2026년 3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됨.
- ▶ 2025년에 미국과 일본이 가진 기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비교해 보면 △ 대미 투자, △ 핵심광물, △ 과학기술 관련된 의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대미 투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일본의 제2차 대미 투자 계획은 미국의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에 최대 73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상호 이해관계가 절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핵심광물] 미-일 양국은 △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미-일 액션플랜, △ 미-일 핵심광물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 △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 간 심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 등 세 건의 문서를 발표함.
 - [과학기술] 2025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미-일 기술 번영 양해각서 체결 이후 AI 기반 혁신, 고성능 컴퓨팅·양자기술, 우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협력 추진이 확인됨.
- ▶ 반면, 경제안보 조치를 통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언급은 과거 정상회담에 비해 덜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방위·안보 관련 문제도 기존 정상회담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안보 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열린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2025. 2. 7.)에서는 수출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포괄적인 핵심 및 민감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투자 보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며 일본이 인바운드 투자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만 있음.
 - [방위·안보] 미-이란 전쟁 직후 열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소 초점이 맞춰진 일본의 방위 및 안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
- ▶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경제적 차원의 한-미-일 협력을 논의하지 않지만,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 투자를 연계하여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음.

1. 배경

■ 2026년 3월 1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존 정상회담과 같이 △ 미-일 안보 동맹의 역할 재확인, △ 경제협력 활성화, △ 경제안보 협력 지속을 주요 의제로 다룸.

- 2025년 2월 7일(워싱턴DC, 미국), 10월 28일(도쿄, 일본)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음(표 1 참고).

표 1. 2025년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일자 (2025년)	일본 측 총리	장소	주요 논의 내용
2. 7.	이시바 시게루	워싱턴 DC, 미국	<p>평화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이 갖는 역할 강조 · 미국의 일본 방위 의지 강조 및 일본의 센카쿠 열도 통치 인정 재확인 · 미-일 지휘통제 체계 현대화,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 병력 주둔 증강, 방산 및 기술 협력 강화, 우주 항공 파트너십 지속,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p>성장과 번영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 · 경제적 강압 대응 강화 및 수출통제를 포함한 조치에 대한 정책 조율 지속 · 미국 액화천연가스 수출 확대에 에너지 안보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소형모듈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자력 기술개발과 및 배치 협력 환영 <p>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적 협력(쿼드, 한-미-일 등) 강화 · 제3국에 개방형 무선접속 네트워크(ORAN)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 제공 ·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무력이나 강압 행위 반대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장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 및 대응 필요성 및 한-미-일 3자 협력 강조
10. 28.	다카이치 사나에	도쿄, 일본	<p>정상회담과 함께 여러 이니셔티브 및 합의 사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기술 번영 양해각서 체결 · 핵심광물과 희토류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주요 프로젝트 공개 <p>기타 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동맹의 역지력 강화 및 한-미-일을 비롯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 ·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에 대한 의지 재확인 · 경제안보 협력 강화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위험 검토를 강화하고 포괄적 메커니즘 적용

자료: The White House(2025. 2. 7.),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2/united-states-japan-joint-leaders-statement/>; The White House(2025. 10. 27.),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10/united-states-japan-framework-for-securing-the-supply-of-critical-minerals-and-rare-earths-through-mining-and-processing/>; The White House(2025. 10. 28.),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rives Forward Billions in Investments from Japan,"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0/28195/>; The White House(2025. 10. 29.), "Memorandum of Cooperation Regarding the Technology Prosperity Dea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5/10/u-s-japan-technology-prosperity-deal/>; The White House(2025. 10. 28.),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rives Forward Billions in Investments from Japan,"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0/28195/>;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2025. 10. 28.),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TAKAICHI Sanae Regarding the Visit to Japan by U.S. President Trump," <https://japan.kantei.go.jp/104/statement/202510/28kaiken.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3. 27.).

- 미국과 일본은 2025년 7월 통상 및 투자에 관한 합의를 이룬 뒤 정상회담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해 왔으며, 이 외에도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 관련 논의를 계속해 옴.
- 2025년 7월 22일 프레임워크 합의(Framework Agreement)를 통해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세부적인 절차를 같은 해 9월 4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마련함.
 - 미-일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 금액은 반도체, 제약, 금속, 핵심광물, 조선, 에너지(파이프라인 포함),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 사용될 것이며, 언급된 분야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약정된 금액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 전에 집행될 예정임.
- 해당 합의를 통해 미국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으며 상당수 관세 인하 조치가 실행됨.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4일 행정명령 14345(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에 서명하며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인하함.
- 또한 일본은 미국산(産) 농산물, 자동차, 항공, 군사장비 등에 대한 수입 증대 및 일본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함.
 - [농산물] 일본은 쿼터 조정을 통해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증가시키기로 하며 그 외 80억 달러 규모의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친환경 항공유를 미국으로부터 매입
 - [에너지] 미국의 대일본 에너지 수출을 확대할 것이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투자에 대한 구매계약협약에 대해 검토
 - [제조업 및 항공우주] 보잉 항공기 100대를 비롯한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 [자동차 및 산업재] 미국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수입제한 해제, 미국 자동차 표준 인정 및 산업/소비재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 정도 확대
- 이 외에 미-일 기술 번영 양해각서 체결이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 확보를 위한 협력 방향도 제시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미-일 협력 방향이 분야별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
 - 미-일 기술 번영 양해각서는 △ AI 도입 및 혁신, △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연구안보, 첨단 무선 접속 네트워크 및 연결성, 제약바이오 공급망, 양자 정보 과학기술, 우주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함.¹⁾
 -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이하 '미-일 핵심광물 프레임워크')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원칙을 설정하고 장관급 대화를 개설하며 협력 기반을 다짐.

1) The White House(2025. 10. 29.), "Memorandum of Cooperation Regarding the Technology Prosperity Dea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5/10/u-s-japan-technology-prosperity-deal/>(검색일: 2026. 3. 27.).

2. 미-일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²⁾

■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의 미-일 3차 정상회담은 1차 및 2차 정상회담의 틀에서 의제를 대부분 공유하되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표 2 참고).

표 2. 백악관 발표 자료 기준 미-일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 요약

구분	내용
미국 노동자를 위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 수출]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 • [대미 투자] 1차 투자 패키지(360억 달러)에 이어 2차 투자 패키지(730억 달러) 환영 • [안보] 미-일 투자안보 협력 지속 및 일본의 외국인투자심사 메커니즘 강화 • [비자] 미국은 대규모 투자, 교육, 기술·노하우 전수 기업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우선 처리 제공 • [기타] 양국은 국립공원의 활용·보존·관리 협력 추진
공급망 회복력 에너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전략적 공급망을 제한하는 경쟁국의 지속적 위협 논의 및 주요 인프라·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대를 위한 단기 이니셔티브를 재확인 • [희토류] 일본 미나미토리시마 프로젝트를 포함한 심해 핵심 광물자원 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 가속화 • [핵심광물] 양국은 '핵심광물 행동계획' 서명, '가격 하한제'와 기타 조치를 포함한 '다자간 무역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구상 제시
과학기술 우주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프로젝트·신규 이니셔티브를 통한 협력 지속 - 미국 에너지부·일본 문부과학성은 AI 기반 혁신, 고성능 컴퓨팅, 양자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에 서명 - 아르곤 국립연구소, 리켄, 후지쓰, 엔비디아의 컴퓨팅 기술·솔루션 개발협력 가속화 - NASA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유인 달 탐사 로버를 활용해 달 탐사 진행, 저궤도 및 달 기지 분야 협력 확대. 2026년 안으로 로먼 우주망원경과 MMX 발사 예정 - 2025년 TPD를 바탕으로 바이오기술·제약 공급망 회복력 협력 지속
역지력 방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국방예산 증액 및 협력 의지 환영 • 일본 내 첨단 전력 배치 의지 재확인 • AMRAAM 공동생산 확대 검토 및 SM-3 Block IIA 미사일의 일본 내 생산량 4배 확대 • 일본의 정부 데이터용 안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일 간 정보공유와 계획 수립 강화
지역안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확인하고,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한-미-일 협력 강화 강조 • 제3국에서 전략적 경쟁국 및 불량국가 공동 대응

주: * 표시는 일본 외무성 발표에 언급되지 않음.

자료: The White House(2026. 3. 19.),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engthens U.S.-Japan Alliance for the Benefit of All Americans."

2) The White House(2026. 3. 19.),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engthens U.S.-Japan Alliance for the Benefit of All Americans"과 外務省(2026. 3. 19.), 「日米間の戦略的投資に関する共同発表」를 참고하여 작성.

가. 경제협력

-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미-일 투자 안보 협력 지속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대미 투자] 양국은 2026년 2월에 발표된 1차 투자 패키지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투자 패키지를 공식화하고, 이를 담은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공동 발표'를 통해 그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
 - 양국은 2025년 7월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2029년까지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
 - [투자안보] 양국은 투자 안보에 관한 협력을 지속하고, 일본은 외국인투자심사 메커니즘을 강화할 방침
 - 일본은 올해 안으로 일본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일본판 CFIUS³⁾를 신설할 계획⁴⁾
 - [단기 비자] 미국은 대규모 투자, 미국 고용인 교육, 핵심 기술이전 기업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
 - 일본 외무성은 '관세에 관한 미-일 합의 이행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으나, 관련된 미국 측 발표는 없었음.⁵⁾
-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일본의 제2차 대미 투자계획은 미국의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에 최대 730억 달러(엔화 기준 약 11조 엔)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⁶⁾
 - 제2차 대미 투자계획의 개별 사업은 모두 '에너지' 관련 분야에 집중됨.⁷⁾
 - 소형모듈원자로(SMR): 미-일 합작기업인 GE 버노바 히타치⁸⁾가 참여해 미국 남부 테네시주와 알라바마주에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 천연가스 발전시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에 최대 170억 달러, 텍사스주에 최대 16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 이번 제2차 대미 투자계획의 특징은 제1차(360억 달러 규모)와 비교해 2배 이상의 대규모라는 점, 모두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 상승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제1~2차 대미 투자계획의 전체 규모는 약 1,090억 달러인데, 이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시설 분야임(표 3 참고).
 - 미국 정부는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일본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규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함.

3) 대일외국투자위원회(対日外国投資委員会, 일본판 CFIUS)는 재무성과 국가안보보장국이 공동의장으로 운영되고, 경제산업성, 방위성, 외무성 등이 참여할 예정. 自民党(2026. 3. 13.), 「外為法改正案を国会提出へ外国投資の適正化へ日本版CFIUSを創設」.

4)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일정 기준(예: 상장기업의 경우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 개정안(2026년 3월 17일 각의결정)은 △간접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비지정 업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사후개입조치 도입, △리스크 감감조치에 관한 제도 정비, △일본판 CFIUS 신설, △비외국 투자자를 통한 우회투자(잠탈) 방지 등의 내용 포함. 東・大川(2026. 3. 27.), 「本国会に提出された外為法改正法案の概要と実務上の影響」, Mori Hamada.

5) ジェトロ・ビジネス短訊(2026. 3. 23.), 「日米首脳会談実施 日米合意に基づく第2陣の投資プロジェクトを発表 重要鉱物でも協力強化(ニューヨーク発)」.

6) 外務省, 「日米間の戦略的投資に関する共同発表」,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it_000001_00014.html(검색일: 2026. 3. 24.).

7) 양국은 정상회담 직전인 3월 3~13일에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미국은 상무부, 일본은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제협력은행(JIBC), 일본무역보험(NEXI)이 각각 참가).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area/usa/index.html>(검색일: 2026. 3. 23.).

8) GE 버노바 히타치(GE Vernova Hitachi)는 2007년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GE 버노바(GE Vernova)와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Hitachi)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임.

표 3.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시기와 프로젝트 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25. 9. 4.	- 미-일 양국 정부가 5,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2025. 10. 28.	-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 발표 · 양국 기업이 관심을 갖는 4대 투자 분야: 에너지, AI용 전원 개발, AI 인프라 강화, 중요광물 등
2026. 2. 17.	- 제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3건) · 천연가스 발전(추정액: 약 333억 달러) ·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건설(추정액: 약 21억 달러) ·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추정액: 약 6억 달러)
2026. 3. 19.	- 제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3건) · GE 버노바 히타치가 테네시주 및 알라바마주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추정액: 최대 400억 달러) · 펜실베이니아주에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추정액: 최대 170억 달러) · 텍사스주에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추정액: 최대 160억 달러)

자료: 經濟産業省(2025. 10. 28.), 「日米間の投資に関する共同ファクトシート」; 外務省. 「日米間の戦略的投資に関する共同発表」.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it_000001_00014.html(검색일: 2026. 3. 24.).

- 한편 개별 프로젝트의 금액이 ‘최대’라고 애매하게 표기된 점 외에 사전 보도된 경제안보 분야(디스플레이, 구리 정련, 축전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의 측면에서 미-일 양국 간 투자 분야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됨.⁹⁾
 - 특히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미국은 대규모 발전설비 투자를 증시한 점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됨.
- 마지막으로 향후 일본의 제3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 문서에 포함된 ‘일본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원유 인프라’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됨.¹⁰⁾
 - 원래 일본 정부는 중동 분쟁에 의한 원유 조달 우려에 대응해 알래스카산 원유 증산을 위한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증산분을 일본이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산 원유 비축에 관한 공동 사업 추진이라는 두 가지를 제안했으나, 공동 문서에는 ‘일본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원유 인프라를 포함한 유망한 프로젝트 검토’라는 내용으로 추가됨.
 -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원유 수입(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원유 조달의 분산화 및 중동 의존도 감소를 위해 미국산 원유 확보가 중요함.

나. 핵심광물·에너지 자원 안정화

- 미-일 양국은 수출규제와 같은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함을 확인하고, 주요 인프라와 산업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함.
- 양국은 △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미-일 행동계획, △ 미-일 핵심광물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 △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 간 심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 등 세 건의 문서를 발표

9) 前田和馬(2026. 3. 24.), 「日米首脳会談：経済合意に関する考察～対米投融资の優先順位に日米でズレ?～」, p. 3, 第一生命経済研究所.

10) 木内登英(2026. 3. 23.), 「日米首脳会談：日本にとっては概ね想定通りの展開：米国産原油の確保は日本にとって喫緊の課題」, <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20260323.html>(검색일: 2026. 3. 24.).

- 양국은 '복수국간 무역 이니셔티브' 구상을 전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한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미-일 행동계획'에 합의¹¹⁾
 - 행동계획에는 △ 우선 선별된 광물을 중심으로 '국경조정형 가격 하한'과 같은 무역정책 및 메커니즘 제도 설계, △ 중·하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복수국간 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 논의 등이 포함
 - 미국이 기서명한 '미-멕시코 행동계획'¹²⁾과 비교했을 때 '미-일 행동계획'에는 △ 중·하류 산업 경쟁력의 유지·강화 방안 논의 및 △ '복수국 협정' 규정 내 경제적 강압에 대응을 위한 협력 문장이 신규 추가됨.

표 4.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행동계획

번호	내용
1	우선 선별된 특정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국경조정형 가격 하한' 등 협조적 무역정책 및 메커니즘의 실행 가능성과 제도 설계에 대해 다른 참가국을 포함해 논의
2	중·하류 산업 경쟁력의 유지, 강화 방안 논의
3	<p>체약국의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provision)을 핵심광물 무역에 관한 복수국 협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국 간 핵심광물 시장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치 •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무역에 관한 기준 • 기술·규제 협력 • 투자 촉진 및 심사 • 지질조사 매핑 협력 •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단·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조율된 대응 • 핵심광물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 협조(coordinated, 공동) 비축 •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4	<p>미국, 일본, 제3국에서 상호 관심대상 핵심광물 채굴·가공·제조 프로젝트를 선별해 금융지원 및 기타 정책적 지원 제공</p> <p>USGS-일본 측 상용 기관 간 잠재적 핵심광물 매장지 정보 공유</p>
5	본 행동계획은 미국 USTR과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이 공동 수립

주: 밑줄은 미-멕시코 행동계획에 없는 신규 내용을 표시.
 자료: U.S.-Japan Critical Minerals Negotiations(2026. 3.), "United States-Japan Action Plan for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Resilience."

표 5. 미일 핵심광물 프로젝트 협력 공동 팩트시트

프로젝트명	국가	내용
ReElement (희토류)	미국	미쓰비시머티리얼 협력 검토 재활용·정제능력 공동개발 일본 내 재활용사업 설립 검토
Cooper 월드 (구리광산)	미국	타당성조사 진행 중 미쓰비시상사(30% 지분)
Exurban (전자폐기물 2차 제련)	미국	미쓰비시머티리얼·RioTinto의 Exurban 공동투자 스크랩 2차 제련사업
Albermarle (리튬)	미국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기업 투자, 오프테이크 검토 중
Alcoa (갈륨)	호주	미-일-호 3국 협력사업 미국·호주 정부 출자 예정
Kalgoorlie (니켈)	호주	호주·미국 지원 의향 스미토모/미쓰비시상사 참여 일본 정부 타당성조사 지원 중
Atlas Neves (리튬)	브라질	미쓰비시상사 출자 미-일 정부는 금융지원 검토
히나타제련소 Speewah(형석)	일본 호주	니켈메트 생산설비 투자 스미토모상사 참여
Nouveau Monde	캐나다	흑연 채굴·가공 가치사슬 파나소닉에너지 오프테이크 계약 일본 정부 투자 의향 표명
NextSource BAF	UAE	음극재 시설: 한와(阪和興業), JOGMEC 투자의향(3천만 달러)
Lofdal REE	나미비아	중희토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JOGMEC(지분 약 15% 예상)
Aclara Carina	브라질	이온흡착형 희토류 사업 미국 DFC 500만 달러 지원

자료: USTR(2026. 3.), "Joint Fact Sheet for Japan-U.S. Critical Minerals Project Cooperation."

11) United States-Japan Action Plan for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Resilience: U.S.-Japan Critical Minerals Negotiations(2026. 3. 19).

12) United States-Mexico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2026. 2. 4).

- ‘미-일 핵심광물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2026년 3월 14일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핵심광물 투자장관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지원 의향을 밝힌 13건의 광물 프로젝트가 포함됨.¹³⁾
 - 여기에는 미쓰비시머티리얼과 미쓰이물산 등이 참여하는 미국 내 희토류 재활용(인디애나주), 리튬(인디애나주), 구리(인디애나주·애리조나주) 프로젝트, 일본 스미토모금속광산의 히나타 제련소(니켈) 프로젝트, 그리고 제3국의 희토류, 갈륨, 형석(fluorite), 흑연, 음극재 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됨.
-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심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미-일 워킹그룹 신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에 합의함.¹⁴⁾
 - 워킹그룹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 국장·부차관보급에서 개최될 예정
 - 워킹그룹의 협력 분야는 △ 정보 공유, △ 기술 공유(현장 시찰·인적 교류 포함), △미-일 산업계 간 규제 접근법·모범사례 논의 및 연구 우선순위 공유·신규 경제적 기회 모색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 △ 기술·인프라(asset)의 상호 활용 등을 포함
 - 예상 의제로는 일본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심해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 하와이 인근 Clarion-Clipperton Zone의 망간단괴(polymetallic nodules) 프로젝트가 거론
 - 동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 및 재정지출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¹⁵⁾

다. 과학기술 협력

- 양국은 민간 차원에서 AI 기반 혁신·고성능 컴퓨팅·양자기술, 우주, 바이오 분야에 관한 협력 추진을 확인
- [AI·컴퓨팅: 정부] 미 에너지부(DOE)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6년 1월 27일 AI 기반 과학연구 협력을 위한 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 서명함으로써 AI 및 HPC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을 추진할 계획¹⁶⁾
- [AI·컴퓨팅: 민간] 아르곤 국립연구소(DOE 산하), 리켄, 후지쓰, 엔비디아는 2026년 1월 27일 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함.¹⁷⁾
 - 리켄, 후지쓰, 엔비디아는 차세대 슈퍼컴퓨터 ‘후기쿠’ 후속 기종 개발협력을 추진 중
- [우주] 미-일 양국은 우주 인프라 구축, 기술패권 대응 차원에서 NASA 주도의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참여와 JAXA 주도의 화성위성탐사(MMX) 미션¹⁸⁾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¹⁹⁾

13) Joint Fact Sheet for Japan-U.S. Critical Minerals Project Cooperation(2026. 3. 19.), ‘미-일 핵심광물 투자장관회의’는 2025년 10월 28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미-일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확보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개최됨.

14) MEMORANDUM OF COOPERATION Regarding Deep-Sea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Betwee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26. 3. 19.).

15) 심해·해저 광물자원은 주로 국제수역에 분포해 있어 국제해저지구(ISA)에서 관리하는데, 관련 채굴 규정 및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굴 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ISA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2025. 4. 24. 서명)을 통해 NOAA에 해저광물자원 개발허가 발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ISA를 우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일본은 ISA 회원국이면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응해 자국 미나미토리시마 해역에서 희토류 채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New York Times(2026. 3. 27.), “Japan and the U.S. Agree to Team Up on Seabed Mining.”

16) 동 SOI를 통해 양국은 미국 국가전략인 ‘제네시스 미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임. 양국 정부는 과학 분야에서 AI 활용(AI for Science), 양자기술, 핵융합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인재 양성, 연구기반 강화 등을 위한 협력 확대를 모색할 방침임. 일본은 AI 탑재 로봇을 활용한 과학실험 자동화 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17) 본 협정은 차세대 계산 기반의 구축과 활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과학공학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평가, 과학 분야에서 고도의 AI 활용 추진을 목적으로 함. 理化学研究所(2026. 1. 27.), 「理化学研究所, アルゴン 国立研究所, 富士通, NVIDIAが先端的HPC/AIの推進で協力」.

18) JAXA가 주도하는 MMX(Martian Moons eXploration)는 화성 위성의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탐사 프로젝트로 NASA는 과학 장비를 제공할 예정.

-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 JAXA와 도요타가 공동 개발하는 가압식 달 탐사 로버를 활용할 계획
- 양국은 저지구궤도와 NASA의 달 기지(Gateway Moon base) 협력을 확대하고, 2026년 안으로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과 화성위성탐사(MMX)를 발사할 예정
- **[바이오]** 양국은 2025년 10월 기술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에 의거해 바이오기술·제약 공급망 확보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2025년 10월 미-일 5,500억 달러 투자 프레임워크 지원을 목적으로 ‘일본 전략투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9대 전략투자 분야 중 제약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 기업은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생산 투자 및 스타트업 대미 진출 확대 등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²⁰⁾

라. 방위·안보 협력과 지역안보 협력

■ 미-일 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첨단 전력 배치를 기반으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공동생산 확대를 포함한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양국은 SM-3 블록 IIA의 일본 내 생산량 4배 확대 및 AMRAAM 공동생산 확대 검토 계획을 발표
 -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지스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공동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등 방위산업 생산기지로서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²¹⁾

■ 미-일 양국은 대만해협 안정, 북한 비핵화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제3국에서의 전략적 경쟁국 대응을 통해 지역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다카이치 내각은 일전의 미-일 정상회담(2025. 10. 28.)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일본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임.²²⁾
- 양국은 한-미-일 협력강화뿐 아니라 미·일·필리핀, 미·일·호주·인도(쿼드) 등 역내 가치 공유국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등의 지원을 촉구했으나,²³⁾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발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음.

19) 外務省(2026. 1.), 「日米宇宙協力」, https://www.mofa.go.jp/mofaj/gaiko/space/j_us.html(검색일: 2026. 3. 26.).

20) Tsujiguchi, Makoto(2026. 1. 13.), “Leveraging Japan’s Appetite for U.S. Investment and Partnership in Pharmaceuticals and Biotechnology,” CSIS.

21) FPRI(2026. 3. 23.), https://www.fpri.org/article/2026/03/fpri-experts-react-the-cost-of-a-win-win-for-us-japan-relations/?utm_source=chatgpt.com.

22) 外務省(2026. 3. 19.), 日米首脳会談及び夕食会,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it_000001_00014.html(검색일: 2026. 3. 26.).

23) 일레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이 합정을 파견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음. Donald J. Trump (2026. 3. 14.),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6227904143399817>.

3. 미-일 협력 방향 전망 및 시사점

■ 미-일 정상회담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미 투자, 핵심광물, 과학기술 협력 의제는 구체화되고,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경제안보 조치에 대한 논의는 유보적으로 변해가며, 방위·안보 관련 사안은 대체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표 6.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미-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진행 상황

분야	1차(2025. 2. 7.)	2차(2025. 10. 28.)	3차(2026. 3. 19.; 금번)	추세
대미 투자	· 상호투자를 확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	·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세부적인 투자 공동 팩트시트 발표	· 1차(2026. 2. 17.)에 이은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진전 및 구체화
경제 안보	·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고 핵심 및 민감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 공조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강화 언급	· 투자안보 협력을 지속하며 일본은 인바운드 투자 심사를 강화할 계획	범위 좁아짐
핵심 광물	· 에너지 안보의 일부로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언급 →	· 협력 방향을 담은 프레임 워크 발표 →	· 구체적인 행동계획 등이 발표됨 →	진전 및 구체화
과학기술	· 우주 협력을 논했지만, 과학기술 전반이 크게 부각되지 않음.	· 미-일 기술번영 양해각서 체결	· 이전 미-일 기술번영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지속	진전 및 구체화
방위 안보	· 인도-태평양(양안관계, 북한 등)에서 공조 언급	· 인도-태평양에서 공조 지속 언급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신 지속 및 미사일 협력 확대	현상 유지

자료: The White House(2025. 10. 28.),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rives Forward Billions in Investments from Japan,"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0/28195/>(검색일: 2026. 3. 27.).

■ 주요국 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은 지속해 추가적인 투자 프로젝트 선별에 나설 것으로 보임.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의한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된 것을 볼 때 일본 정부는 관세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 즉시 제122조 관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광범위한 제301조 조사에도 착수해 관세 위험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는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프로젝트나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가 선별되었으며, 향후 비슷한 유형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직접 참여]** SMR과 관련해 미-일 합작기업인 GE 버노바 히타치의 프로젝트가 선별되었으며, 오키와이의 세계 최대(9.2GW)²⁴⁾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SB에너지에 의해 수행됨.

24) 미 상무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언급함. Department of Commerce(2025. 2. 17.), "Fact Sheet: U.S. — Japan

- [간접 참여] 한국과 비슷하게 미-일 전략적 투자 MOU에도 투자위원회가 유사한 외국 공급업체 대신 일본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의 경우 일본 정부가 지속해 고려할 유인이 있음.
 - [경제안보적 가치] 제조업에서 중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시설 투자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핵심광물에 대한 투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될 수 있음.
-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영역이라도 미국 및 일본 정부의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유 조달] 일본은 일본·아시아의 원유 조달 안정성을 고려하여 미국산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미-일 협력과 미국산 원유를 일본 내에 비축하는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함.²⁵⁾
 - [인공지능] 미국 주도의 전략적 AI 협력 이니셔티브인 팩스실리카(Pax Silica)에 대해 미 국무부 차관 제이콥 헬버그는 소프트뱅크가 팩스실리카 기금의 주요 참여 기업 중 하나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²⁶⁾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미-일 관세 합의를 통한 대미 투자기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음.²⁷⁾

표 7. 일본의 대미 투자계획과 주요국 간 비교

국가	대미 투자 규모	비고
일본	총액 5,550억 달러	- 지금까지 6건, 총액 1,090억 달러(제1차 360억 달러 및 제2차 730억 달러)를 공표
EU	6,000억 달러	- 총액은 제시됐으나 상세 내역을 약속하지 않음 · 3월 19일 유럽의회는 대미 협정 절차 재개를 위한 논의 실시(3월 하순이나 4월에 본회의 표결 전망)
한국	3,500억 달러(이 중 조선 1,500억 달러)	- 3월 18일부터 미국과 실무자 협의를 시작 · 「대미 투자특별법」이 3월 12일에 제정
대만	2,500억 달러	- TSMC의 투자 중심

자료: 「対米投融资、日本が突出 累計17兆円確約 採算には不安 車関税維持へ合意履行」(2026. 3. 21.), 『日本経済新聞』을 보임.

■ 한편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대미 투자계획을 두고 성급한 검토에 대한 불안,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등이 제기되었음.

- 일본의 제1~2차 대미 투자계획 규모(총액 1,090억 달러, 엔화 기준 17조 엔)는 전체 대미 투자 규모인 5,500억 달러의 20% 수준인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EU, 한국, 대만 등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표 7 참고).²⁸⁾
- 일본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EU와 한국 등 주요국은 국내 절차와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인상

Trade Deal,"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26/02/fact-sheet-us-japan-trade-deal>(검색일: 2026. 3. 27.).

25) 해당 내용은 일본 외무성 발표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글로벌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단기적으로 자국 원유의 수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木内登英(2026. 3. 23.), 「日米首脳会談：日本にとっては概ね想定通りの展開：米国産原油の確保は日本にとって喫緊の課題」, 野村総合研究所.

26) New York Times (2026. 3. 23.), "Trump Sets Up 'Pax Silica' Fund to Reduce Global Dependencies," <https://www.nytimes.com/2026/03/23/business/economy/trump-pax-silica-fund.html>(검색일: 2026. 3. 27.).

27) New York Times (2025. 12. 4.), "Japanese Billionaire Plans Sprawling Series of 'Trump Industrial Parks'," <https://www.wsj.com/tech/trump-softbank-masayoshi-son-factory-plans-7fbb904e>(검색일: 2026. 3. 27.).

28) 「対米投融资、日本が突出 累計17兆円確約 採算には不安 車関税維持へ合意履行」, 『日本経済新聞』(2026. 3. 21.).

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주요국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단기간에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에 대해 일본 기업들은 불안감을 표시함.
 -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생산 시작)이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경우 수익 실현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 규모 확정 및 사업후보 선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됨.²⁹⁾
- 또한 일본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실행될 경우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³⁰⁾
- 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인 2029년 1월까지 3년 동안 엔화 기준 약 85조 엔(5,500억 달러)이 투자될 경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8.3조 엔 규모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규모(27.5조 엔)를 상회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과 '실제 자금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대미 투자(달러 유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엔화 약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됨.

■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의 핵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함.³¹⁾

- 이번 회담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중동 분쟁 여파로 5월 중순으로 연기)을 앞두고 미-일 양국에 대중국 견제 대응책을 사전에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 분야 중심의 제2차 대미 투자계획은 단순한 미-일 간 에너지 협력을 넘어 대중국 견제 강화라는 경제안보적 의의를 지님.
 - SMR 협력은 중·러가 주도하는 신흥국의 원전 개발 수요에 대응해 미-일이 공동으로 원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
 -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대중국 AI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바, 일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대미 투자계획을 제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정확히 부합함.

■ 수출통제를 비롯한 경제안보 조치 공조의 경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열린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2025. 2. 7.)에서는 수출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포괄적인 핵심 및 민감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2025. 10. 28.)에서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만 언급함.

29) 前田和馬(2026. 3. 24.), 「日米首脳会談：経済合意に関する考察～対米投融资の優先順位に日米でズレ?～」, p. 3, 第一生命経済研究所.

30) 唐鎌大輔(2026. 2. 10.), 「大きな変動に直面する本邦の直接投資動向」, p. 3, みずほ銀行.

31) 일본 총리실의 경제안보 및 산업정책 자문역인 호스카와(細川)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본질이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협력'에 있었다고 진단했으며, 본 단락의 내용은 호스카와의 평가를 정리한 것임. 「【細川昌彦 深層パワーゲーム】日米首脳会談 エネルギー・重要鉱物に込められた「対中国」戦略的意義」2026. 3. 23.), 『日経ビジネス電子版』.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열린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2025. 10. 28.) 직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2025. 10. 30.)에서 각종 관세 및 경제안보 조치에 대한 휴전을 선언한 만큼 포괄적인 범위에서 미국과 일본이 경제안보 조치를 드러나게 논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투자 보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과 맥락이 이어지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인바운드 투자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음.
- 2026년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경제안보 조치 공조를 제한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이 드러난 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는 다른 국가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해 국산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미국도 희토류를 비롯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협상력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이란 전쟁 직후 열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소 초점이 맞춰진 일본의 방위 및 안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

-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열린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2025. 10. 28.)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으며 평화를 위한 노력에 미국 측 파트너로 서겠다고 언급했으나³²⁾ 이는 미국 측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일본 측이 미국 측 접근 방식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동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일본 측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기조와 이에 대한 미국의 인정, 양안 문제에 대한 강압이나 무력 사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문구는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을 자극하는 논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되 일본 정부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관된 군사안보적 시각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국 측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대미 투자 확대를 공언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간접적 참여 및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라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한국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간접 참여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2)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2025. 10. 28.),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TAKAICHI Sanae Regarding the Visit to Japan by U.S. President Trump," <https://japan.kantei.go.jp/104/statement/202510/28kaiken.html>(검색일: 2026. 3. 27.).

-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으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소재의 경우 대미 투자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일본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매년 200억 달러의 투자 상한선이 존재하는 만큼 일본보다는 성급한 투자나 원화 가치 절하 압박에 대한 우려가 덜할 수 있음.
 -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은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 보증채 형태로 충당하는 구조가 되어 원화 절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정부 설명에 따르면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5년간 연간 150억~180억 달러 수준의 수익이 있었음.³³⁾
 - 연간 20억~50억 달러의 정부 보증채 발행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 민간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 규모(33억 달러)와 비교할 때³⁴⁾ 단순히 민간이 발행한 외화 채권이 정부 보증채로 전환된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하지만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지속적으로 대미 투자에 활용되어 외환보유고 축적에 지장이 생긴다면 향후 중동 분쟁과 같은 사태가 재차 발생해 원화 가치 절하 충격이 있을 때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함.

■ 또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면 서로 간의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동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개최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은 군사안보적 필요성을 넘어선 경제적 차원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대체로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를 위한 차원으로 다소 제한한 한계가 있음.
- 상호 간의 전략적 대미 투자를 연계해 공급망에서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이룰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음.^{KIEP}

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11. 14.),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8415>(검색일: 2026. 3. 27.).

34) 2025년의 경우 주된 민간기업 측 달러화 채권 발행은 LG에너지솔루션(20억 달러), 포스코홀딩스(7억 달러), SK하이닉스(12억 달러)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두 대미 투자가 활발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음. 주혜원, 김선경(2026. 1. 15.), 「2026년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 전망」,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